

삼국시대의 인문 정신과 세계관

Humanistic spirit and world view of Three Kingdoms of Korea

저자 (Authors)	노종국 Noh, Choong-Kook
출처 (Source)	동서인문학 48 , 2014.12, 25-50(26 pages) Humanities Studies East and West 48 , 2014.12, 25-50(26 pages)
발행처 (Publisher)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The Institute for Humanit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077849
APA Style	노종국 (2014). 삼국시대의 인문 정신과 세계관. 동서인문학, 48, 25-50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19 14:10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삼국시대의 인문 정신과 세계관

노 중 국*

I. 서 언

한국고대사회는 평등사회에서 국가사회로 전환된 시기이다. 국가사회로 전환되면서 만주와 한반도에서는 여러 국들이 성립하였다. 고조신을 비롯하여 진국, 부여, 옥저, 동예, 마한, 진한, 변한 등이 이 시기의 국들이다. 따라서 이 시기를 多國시대라고 할 수 있다. 다국시대의 각국은 자국의 건국을 신성화하기 위해 건국시조의 탄생과 건국과정을 신화화, 설화화하였다. 또 각국은 공통의 문화 기반 위에서 자국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변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다양한 국들이 성립하여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고대문화의 토대가 만들어졌다.

만주와 한반도 각 지역에서 성립한 국들은 이후 통합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통합은 약체국이 강대국에게 흡수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약체국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전쟁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통합 과정이 마무리된 1단계가 삼국정립이다.

통합된 국들은 이제 지방으로 편제되었다. 삼국은 지방으로 편제된 지역의 문화를 흡수하면서 자국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정치, 외교, 군사,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전쟁을 하면서 문화 교류를 하기도 하고, 국제관계에서는 자국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삼국은 각각 다양한 문

*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화를 만들고 자국의 문화를 발전시켰다. 삼국이 만들어낸 다양한 문화는 한국고대문화를 더욱 풍부하게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변화 발전을 거쳐 온 한국고대문화 가운데 삼국시대의 인문 정신과 세계관에 대해 정리하기로 한다. 먼저 삼국이 공유한 인문정신으로서의 삼교 포함 정신과 정치와 사회를 통합하는 상징물에 대해 정리해 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복잡하게 전개된 국제관계 속에서 삼국이 자국 중심의 세계관을 어떻게 설정하였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삼교 포함 정신

1. 신라의 풍월도(풍류도)

삼국이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이루기 이전에는 토착신앙(무교 신앙)이 사회의 바탕에 깔려있었다. 그러나 삼국이 중앙집권체제를 갖추면서 정치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사상은 유교, 도교, 불교였다. 이를 三敎라고 한다. 삼교의 본질에 대해 최치원(857~?)은 <난랑비> 서문에서 유교의 본질은 ‘들어와서는 집안에서 효를 행하고 나가서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으로, 도교의 본질은 ‘자랑함이 없는 일을 하고 말없는 가르침을 행하는 것’으로, 불교의 본질은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으로 압축해서 표현하였다.¹⁾

삼국은 삼교가 갖고 있는 각자의 특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 삼교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최치원은 이를 ‘삼교 포함’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연구자에 따라 최치원이 말한 삼교 포함을 삼교 융합(融合)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융합과

1) 『三國史記』 권제4 신라본기 진흥왕 37년조의 “崔致遠鸞郎碑序曰 國有玄妙之道 曰風流設敎之源 備詳仙史 實乃包含三敎 接化羣生 且如入則孝於家 出則忠於國 魯司寇之旨也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敎 周柱史之宗也 諸惡莫作 諸善奉行 竺乾太子之化也” 참조.

포함은 성격이 다르다. 融(융)은 말 그대로 녹여서 하나로 합치는 것, 여럿을 하나로 만드는 것, 즉 새로운 성질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包(포)는 ‘싸다’는 뜻이고 ‘습(습)’은 ‘머금다’ ‘품다’의 뜻이다. 즉 포함은 여러 가지를 싸고 품되 그것이 상호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공존과 상호 보완을 통해 상승 작용을 하도록 한 삼교 포함 정신이 바로 삼국 시대의 인문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최치원은 유, 도, 불 삼교를 포함하는 정신을 풍류도라고 불렀다. 그런데 최치원이 풍류도를 〈난랑비〉에 쓴 것은 풍류도가 화랑도들이 마땅히 배워야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풍류도와 화랑도와의 이러한 관계는 풍류도가 화랑도가 창설될 당시의 사상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준다.

화랑도는²⁾ 진흥왕(재위 540-576)이 ‘知人’ 즉 사람 됨됨이[邪正]를 알아서 우수한 자를 뽑아 조정에 천거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다.³⁾ 진흥왕은 화랑도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덕목을 풍월도라 불렀다. 풍월도의 내용은 진흥왕이 추구한 사상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진흥왕은 백부 법흥왕을 본받아 한 마음으로 부처를 받들었고 사찰을 만들었다. 즉 왕은 독실한 불교신자였다. 그러면서도 진흥왕은 천성이 고상하고 멋스러워서[風味] 신선을 많이 숭상하였다. 신선 숭상은 도가 사상을 말한다. 한편 진흥왕은 효제충신(孝悌忠信)으로서 치국의 대요로 삼았다. 효제충신은 유교의 기본 사상이다.⁴⁾

이로 미루어 풍월도는 유, 도, 불 모두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최치원은 풍류도라고 부르면서 유, 도, 불 삼교를 포함한

2) 화랑도의 성립과 성격에 대해서는 이기동, 『신라골품제 사회와 화랑도』, (서울, 일조각 1984) 참조.

3) 『三國史記』 권제4 신라본기 진흥왕 37년조의 “因此知其人邪正 擇其善者 薦之於朝” 참조.

4) 『三國遺事』 권제4 답사제4 미륵선화 미시랑 진자사조의 “第二十四眞興王…慕伯父法興之志 一心奉佛 廣興佛寺 度人爲僧尼 又天性風味 多尙神仙 擇人家娘子美艷者 捧爲原花 要聚徒選士 教之以孝悌忠信 亦理國之大要也” 참조.

것으로 정리하고 현묘한 ‘도(玄妙之道)’라고 하였다. 따라서 풍월도와 풍류도는 같은 것이되 표현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진흥왕은 삼교를 포함하는 풍월도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 ‘도의를 서로 연마하고’, ‘노래와 음악으로 서로 즐기고’, ‘산과 물을 찾아 노닐고 즐기니 멀어도 이르지 않은 곳이 없는’ 것이었다.⁵⁾

도의의 연마는 유교의 ‘효제충신(孝悌忠信)’을 비롯하여 불교의 ‘제악막작(諸惡莫作)’과 도가의 ‘무위자연(無爲自然)’을 같고 닦는 것이었다. 그래서 <임신서기석>에서는 젊은이 두 사람이 3년 안에 유교 경전을 배울 것을 맹세하였고, 승려들은 낭도로서 화랑도에 참여해 화랑들의 정신 교육과 관련하여 고문 역할을 하였다.

가악은 전통적인 음악, 이른바 향가를 말한다. 신라 경덕왕대의 승려 월명사는 왕 앞에서 자신은 국선의 무리(화랑도)에 속한 승려이지만 다만 향가를 알 뿐 범패는 모른다고 하였면서 도술가라는 향가를 지었다.⁶⁾ 이는 화랑도 내에서는 향가가 널리 불렸음을 짐작하게 한다. 화랑도들은 이러한 가악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열고 전통을 익히고 화합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유오산수는 오대산, 태백산, 금강산, 설악산 등 뛰어난 명산대천을 유오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신체 단련과 조직 생활 및 무술 연마도 곁들여졌다. 그런데 화랑이 거느린 낭도는 수천 명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화랑도 조직은 자연스럽게 군대조직과 비슷할 수 밖에 없었다. 화랑 사다함이 낭도들을 이끌고 대가야 정벌에 참여한 것이⁷⁾ 이를 보여

5) 『三國史記』 권제4 신라본기 진흥왕 37년조의 “或相磨以道義 或相悅以歌樂 遊娛山水 無遠不至” 참조.

6) 『三國遺事』 권제5 감통제7 월명사 충담사조의 “景德王十九年…明奏云 臣僧但屬於國仙之徒 只解鄉歌 不閑聲唄…明乃作兜率歌賦之…” 참조.

7) 『三國史記』 권제44 열전제4 사다함전의 “時人請奉爲花郎 不得已爲之 其徒無慮一千

준다.

신라는 화랑도들에게 풍월도(풍류도)를 통해 도의를 연마하게 하고, 전통적인 가악(향가)을 통해 마음을 화하게 하고, 유오산수를 통해 신체를 단련하고 협동심을 기르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知人 즉 사람됨됨이(邪正)를 알아 우수한 자를 뽑아 조정에 천거하였다. 이처럼 신라는 삼교를 포함한 풍월도(풍류도)라고 하는 인문 정신의 교육을 통해 출중한 인재들을 배출하였다. 김대문이 쓴 『화랑세기』에 “어진 보필자와 충신은 이로부터 나왔고, 훌륭한 장수와 용감한 병졸은 이로부터 생겼다.”⁸⁾라는 표현이 이를 잘 보여준다.

2. 고구려의 고분벽화

고구려에서도 유, 도, 불 삼교는 공존하면서 상호 보완 작용을 하였다. 『삼국유사』에는 고구려의 이러한 상황을 ‘술에는 세 발이 있고, 나라에는 삼교가 있다(鼎有三足 國有三教)’고 표현하였다.⁹⁾ 세 발이 달린 술은 가장 안정된 상태를 말한다. 삼교는 유, 도, 불교를 말한다. 나라에 삼교가 있는 것이 술에 세 발이 있는 것과 같다고 본 것은 유, 도, 불 삼교가 안정된 형태로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삼교 정족으로 부를 수 있겠다.

고구려에서 삼교 정족이 어떠한 형태로 역할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문헌 자료는 없다. 때문에 삼교 정족의 모습은 고분벽화의 내용을 통해 추정해 볼 수밖에 없다. 고구려 고분 가운데 벽화가 그려진 고분은 약 100여 기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人…眞興王命伊浪異斯夫 襲加羅一作加耶國 時斯多含年十五六 請從軍…遂命爲貴幢裨將 其徒從之者亦衆” 참조.

8) 『三國史記』 권제4 신라본기 진흥왕 37년조의 “故金大問花郎世記曰 賢佐忠臣 從此而秀 良將勇卒 由是而生” 참조.

9) 『三國遺事』 권제3 흥법제3 보장봉로 보덕이암조.

고구려 고분 벽화는 대개 3시기로 나누어 그 변화상을 살펴볼 수 있다.¹⁰⁾ 전기는 3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걸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벽화 내용은 생활 풍속도나 사신도가 중심을 이룬다. 중기는 5세기 중엽에서 6세기 초에 걸치는 시기이다. 벽화의 내용은 생활 풍속도와 사신도 및 장식 무늬가 공존하고 있다. 후기는 6세기 중엽에서 7세기 전반에 걸치는 시기이다. 벽화의 내용은 사신도가 중심을 이룬다.

중기 벽화에는 생활 풍속과 사신, 혹은 생활 풍속과 장식 무늬가 공존하는 그림과 장식 무늬만을 주제로 한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다. 장식무늬는 연꽃무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생활풍속과 사신은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의 그림 소재였다. 연꽃무늬는 불교가 들어와 성행하면서 벽화의 소재로 받아들여졌다. 전통적인 소재에 새로운 소재가 첨가되어 조화를 이룬 것이다. 따라서 중기의 벽화 내용은 도, 불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구려의 삼교 정족 상황은 연개소문이 집권하면서 깨어졌다. 영류왕을 시해하고 보장왕을 세운 후 집권한 연개소문은 자신의 정변을 합리화하면서, 자신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 유, 불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도교 신앙을 강조하였다.¹¹⁾ 그는 보장왕의 삼교 병흥을 반대한 후 왕에게 도교 진흥을 강력 건의하였다. 그래서 불교 사찰을 도교의 사원(道館)으로 만들고, 도사를 높여 유사(儒士)의 위에 앉도록 하였다.¹²⁾ 이리하여 삼교 정족의 상황은 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 세계에서의 상황의 변화는 고분벽화에도 반영되었다. 후기의 벽화

10)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해서는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서울, 사계절, 2000); 강현숙, 『고구려와 비교해 본 한·위·진 벽화분』(파주, 지식산업사, 2005) 참조

11) 이내옥, “연개소문의 집권과 도교” 『역사학보』 99·100 합집(1983); 이만열, “고구려 사상 정책에 대한 몇 가지 검토” 『유홍열 박사 화갑기념논총』(1971)

12) 『삼국유사』 권제3 흥법제3 보장봉로 보덕이암조.

내용이 사신도가 중심을 이룬 것이 이를 보여준다.

삼교 정족이 깨어짐에 따라 삼교를 신봉하는 각 세력들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 고구려는 점차 혼란에 빠져들었다. 그 결과 고구려를 이탈해 나가는 세력도 있었다. 평안남도 용강군의 반룡사에 주석하고 있던 보덕화상이 연개소문의 도교 진흥 정책에 반발하여 650년(보장왕 9) 백제의 완산주(전주) 고대산으로 옮겨간 것이¹³⁾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다.

3. 백제의 금동대향로

백제도 삼교를 포함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무왕의 사상이다. 무왕은 미륵사와 제석사를 창건한 것에서 보듯이 불교를 깊이 믿었다. 그러면서 무왕은 왕궁 남쪽에 뒷궁남제를 만들면서 못 안에 방장선산을 만들었다.¹⁴⁾ 방장선산은 도가에서 말하는 영주, 봉래와 함께 신선이 사는 삼산의 하나이다. 이는 무왕이 도가사상도 신봉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무왕은 당나라 국학(국자감)에 자제들을 파견하였다. 국학은 유교 경전을 교육하는 곳이었다. 무왕이 이곳에 자제를 파견한 것은 유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무왕은 아들 이름을 유교적 성격을 보여주는 의자(義慈)로 지었다. 무왕의 이러한 모습은 백제도 삼교를 포함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백제의 이러한 삼교 포함 정신은 부여 능산리의 능사에서 출토된 백제금동대향로의 조각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 금동대향로는 위덕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군에 의해 죽은 부왕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567년(위덕왕 13)에 만든 것이다. 따라서 능묘 제사 때 사용된 이 향로

13) 『三國遺事』 권제3 흥법제3 보장봉로 보덕이암조.

14) 『三國史記』 권제27 백제본기 무왕 35년조.

에는 당시 백제 왕실이 추구한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향로는 받침, 몸체, 뚜껑, 손잡이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뚜껑 꼭지는 한 마리의 봉황이 보주를 발로 딛고 있는 모양이다. 뚜껑에는 산, 인물, 기금이수, 나무, 괴암 등등이 새겨져 있다. 몸통에는 연꽃잎과 인물, 기금이수, 물고기 등이 새겨져 있다. 받침은 1마리의 용이 몸을 틀어 힘차게 승천하려는 모습을 하면서 입으로 연꽃의 줄기를 물어 떠받드는 모양이다.¹⁵⁾

이 향로에서 용으로 형상화시킨 받침대와 연화문 장식으로 이루어진 몸통은 불교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뚜껑에 새겨진 악기를 든 5명의 인물을 비롯한 10명의 인물은 선계의 선인을 상징하고 있다. 또 기금이수와 괴암, 나무 등도 선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도가사상을 보여준다. 이를 강조하여 이 향로는 불교와 도가 사상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¹⁶⁾

그러나 이 향로에는 유교 사상도 내포되어 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산이다. 향로의 몸통에서 핵심적인 조각이 연꽃잎이라고 하면 뚜껑 부분의 조각에서 핵심은 산이다. 이 가운데 먼저 정리되어야 할 것이 봉황이 딛고 서 있는 보주 아래의 다섯 개의 봉우리이다. 종래에는 다섯 개의 봉우리를 모두 산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다섯 개 봉우리 가운데 빗금친 공제선이 없는 두 봉우리는 산이 아니다. 따라서 보주 아래에는 3개의 산만 있는 셈이다. 이 세 개의 산을 三山으로 부를 수 있다.

이 삼산 아래에는 꼭대기에 새가 1마리씩 앉아있는 5개의 산이 있다. 이를 五岳이라 할 수 있다. 이 오악 아래에는 70여 개의 크고 작은 산이 새겨져 있다. 이 여러 산들을 諸山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 향로에는 삼산-오악-제산이 표현되었다.

15)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백제금동대향로와 고대동아세아』 백제금동대향로 발굴 10주년기념 국제학술심포지움, 2003. 참조.

16) 조용중, “백제금동대향로에 관한 연구” 『미술자료』 65호(2000).

유교적 예제에서는 산에는 산신이 살면서 국가와 왕실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천하의 명산대천에 제사를 드렸다. 백제도 명산대천에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이 산천에 대한 제사를 대사, 중사, 소사로 나누었다. 삼산은 대사의 대상이었고, 오악은 중사, 제산은 소사의 대상이었다.

백제에서 삼산은 사비 도성 부근의 일산, 부산, 오산이었다. 오악은 동악은 계룡산, 서악은 나산, 남악은 지리산, 북악은 성주산이었다. 그러나 중악의 이름은 알 수 없다.

대사의 대상이 된 삼산은 가장 중요한 산이다. 본 향로에서 삼산의 중요성은 보주를 덮고 서 있는 봉황과 연결시켜 볼 때 잘 드러난다. 봉황은 상서로운 새 가운데 가장 상서로운 새이다. 그래서 봉황의 출현은 성왕의 출현, 태평성세의 도래를 예고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본 향로의 삼산이 봉황과 더불어 태평성세의 구현이라고 하는 염원을 표현한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향로의 산 조각은 유교사상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향로의 조각에는 불교의 연화장 세계와 도교의 신선 세계 및 산천 신들이 국토를 지켜주는 유교의 태평성대 염원이 들어 있다. 그러므로 이 향로는 백제의 삼교 공존, 삼교 포함의 정신을 보여준다고 하겠다.¹⁷⁾

Ⅲ. 위신품의 문화적 성격과 상징성

1. 금관 · 금동관의 문화적 성격 : 북방문화

17) 이상의 서술에 대해서는 노중국, 『백제사회사상사』, (과주: 지식산업사 2010), 548-557쪽 참조.

중앙집권적 국가체제가 갖추어진 이후 왕과 대소 신료들이 공회 석상에 모였을 때 그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 주는 것이 위신품이다. 위신품은 공공성을 갖는다. 이러한 공공성은 제도에 의해 규정된다. 위신품과 관련한 제도가 바로 의관제이다. 의관제는 “귀족 관료들의 신분이나 지위의 고하에 맞게끔 위신품을 규정해 놓은 제도”로, 위신품은 “공식석상에 참여하는 귀족 관료들의 상하 관계를 보여주는 물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의관제의 주 내용은 관(冠), 대(帶), 복색(服色), 신발(履)과 장식대도를 포함시킬 수 있다.¹⁸⁾

이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관이다. 삼국은 모두 처음에는 금관이나 금동관 등 금속제 관을 사용하였다. 고구려의 경우 태왕묘에서 금동관이 출토되었다. 백제의 경우 공주 수촌리, 서산 부장리, 익산 입점리, 나주 신촌리, 고흥 길두리, 화성 요리 등에서 금동관이 출토되었다. 신라의 경우 황남대총 남분·북분, 금관총, 은령총, 서봉총 등에서 금관 및 금동관이 출토되었다. 가야의 경우 고령 지산동 32호분, 30호분, 73호분에서는 금동관이, 75호분에서 철제 관장식이 출토되었다. 왜의 경우 큐슈의 에나후나야마(江田船山)고분에서 금동관이 출토되었다.

그런데 금관이나 금동관은 흉노족과 선비족도 사용하였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주대 이후 관은 기본적으로 천으로 만들고 여기에 옥을 달아 장식하였다. 다만 장식의 수에 따라 고하를 나타내었다. 현재까지 중국에서는 금관이나 금동관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금관이나 금동관은 비중국적인 문화, 즉 북방적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관 장식의 상징성과 사상적 원류

18) 노중국, “대가야사 연구의 진전을 위한 몇 가지 시론” 『대가야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대구, 고령군대가야박물관, 2012).

1) 조익형 장식과 수지형 장식의 의미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만든 금관이나 금동관의 모양은 동일하지 않다. 그렇지만 관의 장식에서는 공통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삼국의 관 장식은 크게 새 날개 형 장식(조익형 장식과 관테에 수지형 또는 초화형 입식을 세운 장식(수지형 장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구려의 경우 조익형 장식은 전 집안 출토 금동관을 들 수 있고, 수지형 장식 역시 집안 출토 금동관에서 확인된다. 백제의 경우 조익형 장식은 공주 수촌리 II-1호·II-4호, 서산 부장리 금동관에서 확인되고 수지형 장식은 나주 신촌리 9호분 금동관이 전형적이다. 신라의 경우 조익형 장식은 경주 금관총에서 출토된 금제 조익형 관장식, 경주 천마총에서 출토된 고깔모양의 금모관 등을 들 수 있고, 출자형이나 출자형+녹각형 장식은 금관총, 서봉총 등에서 출토된 금관이나 금동관에서 확인된다. 대가야의 경우 조익형 장식은 지산동 73호분과 75호분에서, 수지형 장식은 지산동 30호분, 32호분 및 전 고흥 출토 금관과 오구라콜렉션의 금관에서 확인된다.

삼국이 관에 조익형 장식과 수지형 장식을 하였다는 것은 새와 나무가 가지는 신성성을 반영해 준다. 새는 죽은 자의 영혼을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¹⁹⁾, 왕이나 신의 명령을 전하는 전령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²⁰⁾ 수목은 천상과 지상을 연결해 주는 세계수(우주목)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삼국시대에는 새와 수목은 신성조와 신성수로서 숭배되었다.

새의 신성성은 고구려 시조 주몽의 아버지인 해모수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다섯 마리의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머리에는 조우의 관을

19) 『三國志』 동이전 진번한전의 “以大鳥羽送死 其意欲使死者飛揚” 참조.

20) 『三國遺事』 권제5 감통제7 선도성모수희불사조의 “神母本中國帝室之女 名娑蘇 早得神仙之術 歸止海東 久而不還 父皇寄書繫足云 隨鶩所止爲家 蘇得書放鶩 飛到此山而止 遂來宅爲地仙 故名西鶩山” 참조.

쓰고 허리에는 용광(龍光)의 검을 찼다는 것에서²¹⁾ 확인된다. 수목의 신성성은 환인의 아들 환웅이 하늘에서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신시를 열었다는 것과 백제가 온갖 병난을 물리치는 힘을 가진 칠지도의 모양을 수지형으로 만든 것에서 확인된다.

신성한 새와 나무를 상징하는 조익형 장식이나 수지형 장식은 관의 착용자에게 새와 수목이 가지는 신성한 힘을 주는 것으로 관념되었다. 그래서 조정 회의 때나 제사를 지낼 때 관인들은 이를 예관으로 착용하였다.²²⁾ 이처럼 금관이나 금동관에 단 조우형 장식과 수목형 장식은 중국 관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삼국 관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 삼국의 신성조와 신성수

삼국은 관의 장식을 조익형과 수지형으로 한 것은 공통이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삼국의 관장식이 어떤 새와 나무를 상징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삼국이 각각 신성시여긴 새와 나무가 무엇인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각 나라가 신성시여긴 새와 나무는 달랐기 때문이다.

고구려의 경우 문헌 자료에 보이는 새로는 비둘기와 까마귀가 있다. 비둘기는 신모 유화가 보리 씨앗을 시조 동명에게 전하게 할 때 심부름의 역할을 하였다.²³⁾ 까마귀는 검은 색에서 붉은 색으로 변하여 고구려가 부여를 병합하는 징조를 미리 알려주었다.²⁴⁾ 따라서 비둘기나

21) 『東國李相國全集』 권제3 古律詩 東明王篇并序의 “首戴鳥羽之冠 腰帶龍光之劍” 참조.

22) 『周書』 권49 열전제41 이역 상 백제전의 “其衣服男子若同於高麗 若朝拜祭祀 其冠兩廂加翅 戎事則不” 참조.

23) 『동국이상국전집』 권제3 고을시 동명왕편병서.

24) 『三國史記』 권제14 고구려본기 대무신왕 3년조의 “冬十月 扶餘王帶素遣使送赤烏一頭二身 初扶餘人得此烏 獻之王 或曰 “烏者黑也 今變而爲赤 又一頭二身 并二國之徵也 王其兼高句麗乎 帶素喜送之 兼示或者之言 王與羣臣議答曰 黑者 北方之色 今變而爲南方之色 又赤烏瑞物也 君得而不有之 以送於我 兩國存亡 未可知也 帶素

까마귀 둘 다 신성조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까마귀는 태양을 상징하는 새로 관념되어 고구려 고분 벽화에는 태양에 들어 있는 삼족오가 그려져 있다. 이로 미루어 조익형 관 장식은 까마귀를 상징하였을 가능성이 크겠다.

고구려에서 신성시여긴 나무로는 소나무를 들 수 있다. 시조 주몽이 북부여에서 도망갈 때 칼을 반 토막 내어 일곱 모가 난 돌 위의 소나무 아래에 숨겨두었다. 후일 아들 유리가 이것을 소나무 기둥 아래에서 찾아 가지고 오자 태자로 삼았다고 한다.²⁵⁾ 고국천왕의 부인 우씨는 동생 산상왕에게 시집가서 죽어 산상왕릉 곁에 묻혔다. 이에 분노한 고국천왕은 능 앞에 소나무를 일곱 겹 심어 차폐해 달라고 하였다.²⁶⁾ 후계왕을 정하는 神物을 숨겨 놓은 곳이 소나무 아래라는 것과 왕릉을 차폐하는데 소나무가 이용되었다는 것은 고구려에서는 소나무가 신성수로 관념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수지형 장식은 소나무를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백제가 신성히 여기는 새는 국호의 별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백제 국호의 별칭으로 응준(鷹隼 : 應遊)²⁷⁾ 있다. 응이나 준은 모두 매를 말한다. 이 매가 국호의 별칭에 들어 있다는 것은 백제가 매를 신성한 새로 생각하였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금동관의 조익형 장식은 매를 상징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聞之 驚悔” 참조.

- 25) 『三國史記』 권제13 고구려본기 유리명왕 즉위년조의 “類利慙 歸問母氏 “我父何人 今在何處” 母曰 “汝父非常人也 不見容於國 逃歸南地 開國稱王 歸時謂予曰 ‘汝若生 男子 則言我有遺物 藏在七稜石上松下” 참조.
- 26) 『三國史記』 권제17 고구려본기 동천왕 8년조의 “太后臨終遺言曰 妾失行 將何面目¹⁾ 見國壤於地下 若羣臣不忍擠於溝壑 則請葬我於山上王陵之側 遂葬之如其言 巫者曰 “國壤降於予曰 昨見于氏歸于山上 不勝憤恚 遂與之戰 退而思之 顏厚不忍見國人 爾告於朝 遮我以物 是用植松七重於陵前” 참조.
- 27) 『帝王韻紀』 및 『삼국유사』 권제3 답상제4 황룡사구층탑조.

백제와 관련되는 나무로는 괴목과 자작나무를 들 수 있다. 괴목은 의자왕 대에 궁궐 안에서 괴목이 울었는데 그 소리가 사람이 우는 소리와 같았다고 한 기사와²⁸⁾ 다루왕대에 궁궐 안의 큰 괴목이 저절로 마른 2달 뒤에 좌보 홀우가 죽었다는 기사²⁹⁾ 등에서 확인된다. 자작나무는 서산 부장리 5호분에서 출토된 금동관모의 모관의 내피가 자작나무 껍질(백화수피)로 만들어진 것에서 알 수 있다. 중앙아시아와 북아시아에서 알타이 사만은 자작나무와 말을 이용하여 제례를 지냈고, 몽골의 부리아트 족은 자작나무를 천상계의 문을 열어주는 문의 수호자로 생각하였다고 한다.³⁰⁾ 그렇지만 백제에서 자작나무는 관의 내피에서 확인될 뿐이다. 반면에 괴목은 사람의 울음소리를 내면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조짐을 보여주고 있고, 스스로 마르면서 좌보라는 큰 인물의 죽음을 예조해 주고 있다. 또 이 괴목은 궁궐 안에 심어졌다. 따라서 백제의 수지형 관 장식은 신성수로서의 괴목을 형상화한 것이라 하겠다.

신라의 신성조로는 까치와 닭을 들 수 있다. 까치는 석탈해가 신라 동해안의 아진포 해변에 도착할 때 떼를 지어 온 것으로 나온다. 석씨의 ‘뻥’은 ‘까치 작(鵲)’자에서 ‘조(鳥)’자를 떼어내어 만든 것이다.³¹⁾ 이는 석씨가 왕위를 계승할 때 신성조가 까치였음을 보여준다. 닭은 김씨 시조 알지가 출생할 때 시림 숲에서 흰 닭(白鷄)이 울었다는 데서 나온다. 이를 계기로 신라는 국호를 계림으로 고쳤다.³²⁾ 인도에서는 신라를 구구타예설라 불렀는데 ‘구구타’는 닭을, ‘예설라’는 귀함을 뜻한다고 하

28) 『三國史記』 권제28 의자왕 19년조의 “宮中槐樹鳴如人哭聲 夜鬼哭於宮南路” 참조.

29) 『三國史記』 권제23 백제본기 다루왕 21년의 “春二月 宮中大槐樹自枯 三月 左輔屹于卒 王哭之哀” 참조.

30) 강관권, 「자작나무」, 『역사와 문화로 읽은 나무사전』, (파주: 글항아리, 2010), 1048-1055쪽 참조.

31) 『삼국유사』 권제1 기이제1 제4 탈해왕조.

32) 『삼국사기』 권제1 신라본기 탈해이사금 9년조.

였고 또 신라는 계신을 섬겼고 그래서 관을 닭의 날개로 장식하였다고 하였다.³³⁾ 이는 김씨 왕실이 닭을 신성조로 여겼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김씨가 왕위를 세습한 것은 4세기부터이다. 이때부터 신라에서는 금관이나 금동관을 만들어 착용하였다. 이로 미루어 신라의 금관이나 금동관의 조익형 장식은 닭을 상징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신라의 신성수로는 잣나무와 자작나무를 들 수 있다. 잣나무(栢樹)는 궁중에 심어져 있었다. 효성왕이 잠저 시에 현사 신충과 함께 바둑을 두면서 그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때 잣나무에 하였다. 왕이 된 후 효성왕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신충은 시를 지어 잣나무에 붙였고 잣나무는 누렇게 말랐다. 왕이 잘못을 깨닫고 신충을 등용하자 잣나무는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³⁴⁾ 이는 왕궁에 심어진 잣나무가 신성수로 관념되었음을 보여준다. 자작나무는 황남대총 남분에서 출토된 금동관 고깔의 내피와 천마총의 말다래[障泥]가 자작나무 껍질로 만들어졌다는 데서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잣나무는 왕궁에 심어져 있고 사건을 예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신라의 금관이나 금동관의 수지형 장식은 신성수로서의 잣나무를 형상화한 것이라 하겠다.

3) 관 장식의 사상적 원류

관 장식을 조익형과 수지형으로 하게 된 사상적 원류는 소도에서 찾을 수 있다. 소도는 삼한 시기 각국에 세워진 별읍이었다. 여기에 큰 나무를 세우고 북과 방울을 달아 귀신을 섬겼다. 죄를 진 자가 이 소도 안으로 도망쳐 들어가면 함부로 잡아내 오지 못하였다.³⁵⁾ 이는

33) 『三國遺事』 권제4 의혜제5 歸竺諸師조의 “天竺人呼海東云矩矩吒毘說羅 矩矩吒言雞也 毘說羅言貴也 彼土相傳云 其國敬雞神而取尊 故戴翎羽而表飾也” 참조.

34) 『三國遺事』 권제5 피은제8 신충괘관조의 “孝成王潛邸時 與賢士信忠 圍碁於宮庭栢樹下 嘗謂曰 他日若忘卿 有如栢樹 信忠興拜 隔數月 王即位賞功臣 忘忠而不第之 忠怨而作歌 帖於栢樹 樹忽黃悴 王恠使審之 得歌獻之 大驚曰 萬機鞅掌 幾忘乎角弓 乃召之賜爵祿 栢樹乃蘇” 참조.

소도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신성공간임을 보여준다.

이 소도에 세운 나무를 전통적으로 솟대라고 하였다. 이 솟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빠른 자료가 대전 괴정동에서 발굴된 농경문청동기이다. 고리가 달린 앞면 쪽에는 Y자형의 나무 가지 끝에 몸에 반점이 찍힌 새 2마리가 각각 마주보고 앉아 있는 것이 새겨져 있다. 뒷면의 왼쪽 구간에는 사람이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고 그 앞에는 아가리가 좁은 항아리가 놓여 있는 모습이, 오른쪽 구간에는 한 사람이 두 손으로 따비 같은 농기구를 잡고 밭을 가는 모양과 그 아래의 밭고랑에 또 한 사람이 두 손으로 쟁이를 치켜들고 있는 모양이 새겨져 있다.³⁶⁾

이 농경문청동기의 그림에서 앞면의 두 마리 새는 씨앗의 정령을 하늘부터 받아 다시 인간에게 전달해 주는 모습을, 뒷면의 남자 쪽 그림은 밭갈이를, 여자 쪽 그림은 곡령신으로부터 씨앗을 전달받아 뿌리는 일련의 장면을 그린 것이다.³⁷⁾ 따라서 이 농경문청동기는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두 마리의 새가 앉아 있는 Y자 모양의 막대기는 오늘날의 솟대 모습과 일치한다. 따라서 솟대에 그려진 새는 신성조이고 이 새가 앉아 있는 나무는 신성수로 볼 수 있다. 이는 청동기시대에 이미 새와 나무를 신성하게 여기는 의식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식은 삼한시기에까지 이어져 왔다. 삼한에서는 솟대에는 방울과 북을 달았으며, 이 솟대를 세워놓은 공간은 소도라 하면서 신성공간으로 간주하였다.

권위의 상징물은 그 권위의 신성함과 우월함을 드러내준다. 금관이나 금동관도 권위를 보여주는 위신품이다. 그래서 금관이나 금동관에 붙여진 조익형 장식과 수지형 장식은 당시 사람들이 신성하다고 생각

35) 『三國志』 권30 위서 동이전 한전의 “又諸國各有別邑 名之爲蘇塗 立大木 縣鈴鼓 事鬼神 諸亡逃至其中 皆不還之 好作賊 其立蘇塗之義 有似浮屠 而所行善惡有異” 참조.

36) 한병삼, “농경문청동기에 대하여” 『고고미술』 112집(1971).

37) 권오영, “한국 고대의 새(鳥) 관념과 제의(祭儀)” 『역사와 현실』 32집 (1999), 95쪽.

한 새와 나무를 표현하였던 것이다. 그 기원은 청동기시대를 거쳐 삼한시대로 이어져온 솟대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³⁸⁾

IV. 삼국의 세계관

1. 대왕 칭호의 사용

최고지배자의 칭호는 그 나라의 정치 발전 수준과 정치의식을 반영 해주며 왕실의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 준다. 또 이 칭호는 각국의 세계관, 즉 국제관계 상에서 자국을 어느 위치에 놓을 것인가 하는 인식도 보여준다.

삼국의 최고지배자는 처음에는 고유식 칭호를 사용하다가 중국식 왕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신라의 경우 거서간->차차웅->이사금->마립간은 고유식 칭호이고 왕은 중국식 칭호이다. 백제의 경우 신지·읍차->어라하·건길지는 고유식 칭호이고 왕은 중국식이다. 고구려의 경우 고유식 칭호는 확인되지 않지만 신라나 백제의 사례에서 미루어 고유식 칭호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왕호를 사용한 이후 삼국은 다시 대왕이란 칭호를 사용하였다. 대왕은 왕에서 격상된 존칭이다. 대왕 칭호의 사용이 가지는 의미는 중국에서 이른바 5호(흉노족, 선비족, 저족, 강족, 갈족)들이 만리장성을 넘어와 나라를 세운 후 천왕을 자칭한 것에서³⁹⁾ 추론해 볼 수 있다. 천왕 칭호는 중국의 황제 및 천자 칭호에 대응해서 나온 것이다.

38) 노중국, “한국고대사회에서 의기와 위세품이 보여주는 상징성” 『계명사학』 21집 (2010), 참조.

39) 흉노의 斬準은 318년에 漢天왕을, 진진의 苻健은 351년에 天王大單于를, 苻堅은 357년에 大秦天왕을, 呂光은 396년에 大涼천왕을, 赫連勃勃은 406년에 천왕대선우를, 후연 高雲은 409년에 천왕을, 馮跋은 411년에 大燕天왕을 자칭한 것이 그 사례가 된다.

천왕의 의미는 大秦의 시조인 강족 출신 姚弋仲이 “자고로 융적이 천자가 된 적이 없다”⁴⁰⁾고 한 말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말은 천왕 칭호가 천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중국의 천자에 비견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삼국이 대왕을 칭한 것도 같은 시각에서 정리해 볼 수 있다. 즉 강력한 왕권을 확립한 삼국은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스스로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왕보다 격상된 대왕호를 칭하였던 것이다.

삼국의 대왕호는 금석문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고구려의 사례로는 <광개토대왕비문>의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 <충주고구려비>의 ‘고려태왕’, 경주 호우총에서 출토된 <호우명>의 ‘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을 들 수 있다. 백제의 경우 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사리봉안기>의 ‘대왕폐하’, 부여 구아리에서 출토된 <일근명> 거푸집 뒤에 새겨진 ‘大 王天’ 등을 들 수 있다. 신라의 경우 <천전리서석 추명>에 보이는 ‘무즉지대왕’, <을사명>에 보이는 ‘성법흥대왕’, <북한산비> · <마운령비> · <황초령비>에 나오는 ‘진흥대왕’, <태종무열대왕지비>의 ‘태종무열대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금석문은 이 시기 삼국의 왕들의 공식적인 칭호가 대왕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삼국사기』에는 삼국의 최고지배자를 모두 ‘왕’으로 표기하고 있다. 즉 광개토대왕은 광개토왕으로, 진흥대왕은 진흥왕으로 표기한 것이다. 이러한 왕호는 『삼국사기』 편찬자들이 삼국을 중국 중심의 예제 질서 속의 제후국으로 보고 제후국 왕으로 표기한 것이다. 이는 삼국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폄하한 것이다. 따라서 삼국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삼국시기 최고지배자의 칭호는 대왕으로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40) 『晉書』 권116 재기제16 姚弋仲 “今石氏已滅 中原無主 自古以來未有戎狄作天子者” 참조.

이러한 대왕의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자존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폐하 또는 황제 칭호의 사용과 묘호의 사용이다. 폐하는 천자에 대한 경칭이다. 백제에서 폐하 칭호의 사용은 익산 미륵사지서탑에서 출토된 〈사리봉안기〉의 ‘대왕폐하’에서 확인된다. 이 〈사리봉안기〉는 639년(백제 무왕 40)에 만들어졌다. 따라서 ‘폐하’라는 표현은 무왕이 국내에서는 폐하로서 군림하였음을 보여준다.

황제 칭호의 사용은 근래 중국에서 소개된 〈예군(禰軍)묘지명〉의 僭帝에서 확인된다.⁴¹⁾ 예군은 백제 멸망 후 중국으로 들어가 벼슬을 한 백제의 고위 귀족이었다.⁴²⁾ 이 묘지명에 보이는 참제는 의자왕을 말한다. 참제는 참칭한 황제, 즉 예를 벗어난 황제라는 의미이다. 당나라는 의자왕이 황제를 자칭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참제로 표현하였다.⁴³⁾ 이는 역으로 의자왕이 국내에서 황제를 칭한 것을 보여준다.⁴⁴⁾

한편 신라의 묘호의 사용은 ‘태종무열대왕’에서 확인된다. 태종은 묘호이고 무열은 시호이다. 당 고종은 당 태종이 어진 신하 위징, 이순풍 등의 도움으로 천하를 일통하였기 때문에 태종이라는 묘호를 올렸다고 하면서 신라에게 태종 묘호를 바꿀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신라는 무열왕은 성신 김유신을 얻어 ‘일통삼국’하였기 때문에 태종이란 묘호를 올린 것이라고 하면서 묘호의 개칭을 거부하였다.⁴⁵⁾

41) 「禰軍묘지명」의 “僭帝一旦稱臣 仍領大首望數十人 將入朝謁” 참조.

42) 권덕영, 「백제유민 예시 1쪽 묘지명에 대한 단상」 『사학연구 105호』(2012); 김영관, 「중국 발견 예시 가족 묘지명 검토」 『신라사학 24집』(2012).

43) 이는 남조의 왕조가 복위를 인정하지 않고 僞朝 또는 魏虜로, 복위의 황제를 僞主로 표현한 것과 같은 것이다.

44) 노중국, 『백제의 대외 교섭과 교류』, (과주: 지식산업사, 2012), 450-457쪽 참조.

45) 『三國史記』 권제8 신라본기 신문왕 12년조의 “春 唐中宗遣使 口勅曰 我太宗文皇帝 神功聖德 超出千古 故上僭之日 廟號太宗 汝國先王金春秋 與之同號 尤爲僭越 須急改稱 王與羣臣同議 對曰 小國先王春秋諡號 偶與聖祖廟號相犯 勅令改之 臣敢不惟命是從 然念先王春秋 頗有賢德 況生前得良臣金分信 同心爲政 一統三韓 其爲功業 不爲不多 捐館之際 一國臣民 不勝哀慕 追尊之號 不覺與聖祖相犯 今聞教勅

신라는 당이 이세민에게 태종문황제란 묘호를 올린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김춘추에게 태종 묘호를 올렸고 또 이를 바꾸라는 당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는 무열대왕의 공적이 당 태종과 비견할 만하다는 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그만큼 신라는 일통삼국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던 것이다.

2. 대왕 의식과 사이관(四夷觀)

왕에서 대왕으로의 칭호의 격상은 왕호 자체의 격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주변국들을 바라보는 세계관의 변화도 수반되었다. 따라서 칭호의 격상은 자신을 천하의 중심에 두고 주변국들을 낮추어 보는 세계관을 형성하게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세계관에 따라 삼국은 주변 나라를 이적(夷狄)으로 간주하였다. 이를 사이관이라 할 수 있다.

사이관은 중국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은 자신을 중화라 하고 주변국들을 방향에 따라 동이, 서융, 남만, 북적이라 하였다. 이에 따라 주변국이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는 것을 황제의 덕화를 사모하여 온 것으로 보고 이를 조공이라 하였고, 조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물건을 내려주는 것을 은사라고 하였다.

삼국도 대왕을 칭하면서 중국의 사이관을 빌어 자국 중심의 천하관을 표방하였다. 고구려의 경우 <광개토대왕비문>에서는 백제와 신라는 본래부터 고구려에 조공하는 나라로 표현하였고, <충주고구려비>에서는 신라를 동이로, 신라왕을 동이매금으로 불렀으며 나아가 신라왕의 신하들에게도 의복을 하사하였다. 백제 근초고왕은 369년에 만든 <칠지도명문>에서 왜왕을 후왕[제후왕]으로 표기하였고, 영산강 유역에 기반을 둔 침미다래 세력을 ‘남만(南蠻)’으로 불렀다.⁴⁶⁾ 신라도 황룡사9

不勝恐懼 伏望 使臣復命闕庭 以此上聞 後更無別勅"참조.

46) 『日本書紀』 권9 신공기 49년조 참조.

층탑을 만들면서 이웃나라들이 항복해 오고 구한(九韓)이 조공해 온다고 하는 천하의식에서 1층은 일본, 2층은 중화, 3층은 오월, 4층은 탁라(탐라국 : 제주도), 5층은 응유(응준 : 백제), 6층은 말갈, 7층은 단국(거란), 8층은 여적(여진), 9층은 예맥(고구려)에 대응시켰다. 그리고 각 층에 해당되는 나라들이 이른바 9한으로서 신라에 조공하는 나라로 관념하였다.

동이, 남만, 구한이란 표현은 삼국이 각각 자국이 천하의 중심이며 이 인식 위에서 주변 세력들을 이적시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천하관은 자국을 신성시여기는 자존의식을 낳았다.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대왕대의 인물인 〈모두루묘지〉⁴⁷⁾묵서⁴⁷⁾에서는 고구려 시조 추모왕은 하백의 손자요 일월의 아들이며, 추모왕이 세운 나라는 천하 사방이 가장 신성한 나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 신라 진평왕은 자신의 이름은 석가모니의 아버지 이름인 정반(백정)으로, 부인 이름은 석가모니의 어머니 이름인 마야부인으로, 동생 이름은 석가모니의 삼촌 이름인 국반과 백반으로 불려 신라 왕실이 바로 석가족(찰리종)임을 과시하였다.

V. 맺음말

삼국 시기는 격동의 시기이다. 격동의 시기는 삼국으로 하여금 사회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변화무쌍한 국제관계 속에서 살아 남으려면 탄력성을 잃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각국은 정치적 군사적 힘을 키움과 동시에 신민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필요하였다. 신민들을 하나로 묶는 데는 문화와 사상의 힘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 시기 문화의 특징은 여러 사상들이 공존하면서 서로 보완하고

47) 위의 책, “河伯之孫 日月之子 鄒牟聖王 源出北扶餘 天下四方知此國鄉最聖鄉…” 참조.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성이다.

삼교는 유교, 도교, 불교를 말한다. 이 세 사상과 종교는 삼국이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원리로서 기능하였다. 그러나 삼국은 이 삼교 가운데 어느 하나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공존하면서 상호 보완하도록 하였다. 이를 “삼교 포함 정신”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삼국은 민을 통합하여 국가 역량을 극대화하려고 하였다. 그 수단으로 삼국은 각각의 상징물을 사용하였다. 이 상징물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왕과 귀족들의 위신품으로서의 관이다. 삼국의 관 장식은 크게 새 날개 형과 수목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의 새와 수목은 삼국이 각각 신성시하는 새와 수목이다. 고구려의 신성조는 까마귀였고, 신성수는 소나무였다. 백제의 신성조는 매였고, 신성수는 느티나무였다. 신라의 신성조는 닭이었고, 신성수는 난나무였다. 삼국은 이러한 새와 수목을 관의 장식으로 상징화하여 통합의 구심점으로 하였던 것이다.

중앙집권체제를 갖춘 이후 삼국은 자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왕의 칭호를 대왕으로 격상하였다. 대왕 칭호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공통으로 사용하였다. 대왕 칭호를 칭함으로써 삼국의 최고 지배자는 대내적으로 중국의 천자와 같은 존재로서 군림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자국 중심의 세계관을 표방하였다. 이는 삼국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三國志』

『東國李相國全集』

『周書』

『帝王韻紀』

『倣書』

『日本書紀』

강관권, 『역사와 문화로 읽은 나무사전』, 파주: 글항아리, 2010.

강현숙, 『고구려와 비교해 본 한, 위·진 벽화분』, 파주: 지식산업사, 2005.

권덕영, 「백제유민 예시 1쪽 묘지명에 대한 단상」 『사학연구』 105호, 2012.

권오영, “한국 고대의 새(鳥) 관념과 제의(祭儀)”, 『역사와 현실』 32집, 1999.

김영관, 「중국 발견 예시 가족 묘지명 검토」 『신라사학』 24집, 2012.

노중국, 『백제사회사상사』, 파주: 지식산업사, 2010.

_____, 『백제의 대외 교섭과 교류』, 파주: 지식산업사, 2012.

_____, “한국고대사회에서 의기와 위세품이 보여주는 상징성”, 『계명사학』 21집, 2010.

_____, “대가야사 연구의 진전을 위한 몇 가지 시론” 『대가야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대구: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2012.

이기동, 『신라 골품제사회와 화랑도』, 서울: 일조각, 1984.

이내옥, “연개소문의 집권과 도교” 『역사학보』 99·100합집, 1983.

이만열, “고구려 사상정책에 대한 몇 가지 검토” 『유홍열박사 화갑기념논총』, 1971.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서울: 사계절, 2000.

조용중, “백제금동대향로에 관한 연구” 『미술자료』 65호, 2000.
한병삼, “농경문청동기에 대하여” 『고고미술』 112집, 1971.

〈Abstract〉

Humanistic spirit and world view of Three Kingdoms of Korea

Noh, Choong-Kook*

Three Kingdom Period in Korean history is the period of turbulence. In the period, three kingdoms flexibly operate their kingdoms and apply rules. The cultural characteristic of the period is diversity which allows various religious thoughts and ideas to coexist.

Three kingdoms selected the traditional shamanism as state religion and also adopted Confucianism, Taoism, and Buddhism from China. The spirit to allow those religious thoughts and ideas to coexist with one another is called 'Tolerance Spirit toward Three Religion' and it indicates religious diversity of the period.

Three kingdoms tried to reign over people by sanctifying and worshiping certain birds or trees. This is a kind of goods which represents aristocratic class' dignity and the coffin was decorated with certain birds or trees which are regarded as sacred in Three Kingdom Period.

Three kingdoms established centralized states and enhanced the position of royal family by changing, king of a sovereign ruler, to great king. By using the title, great king, sovereign rulers of three

* Keimyung University

kingdoms had the same authority of an Chinese emperor, so-called a son of Heaven. It indicates three kingdoms autonomously have outlooks on the world like Sinocentrism.

Key words: Three religionm(삼교), Buddhism(불교), Confucianism(유교),
Taoism(도교), Four Barbarians Siyi(사이관),
Gilt-bronze crown(금동관), Northern Asia culture(북방 문화),
Great King consciousness(대왕 의식),
Prestige Goods(위신품), Holy bird(신성조)

논문투고일: 2014년 11월 23일

논문심사 및 수정: 2014년 11월 25일 ~ 12월 10일

게재확정일: 2014년 12월 15일

필자이메일주소: jkn@gw.kmu.ac.kr